

용인세브란스병원 NEWSLETTER

NEWS

개원 첫 생체 간이식 성공

중입자치료 '상당 진료' 개시

디자인 싱킹 워크숍 결과 공유회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와 국제 보건의료 증진 MOU

박진오 병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소아뇌전증 환아 가족 '희망캠프' 의료지원

우수 협력업체 감사패 전달식

COLUMN

물놀이 후 아이가 귀 아파한다면...외이도염 의심해야

INFO

신규 협력 의사 소개

기부금 모금 현황



개원 첫 생체 간이식 성공

- B형간염 환자의 반복된 정맥류 출혈, 혈전 동반된 고난도 사례
- 아내가 남편에게 간 일부 기증... 수혜자 · 공여자 모두 안정적 회복



우리 병원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시행한 생체 간이식 수술을 최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를 계기로 경기 남부 지역의 중증 간질환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난도 높은 이식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넓어졌다.

지난 2월 23일 B형간염에 의한 간경화로 위·식도정맥류 출혈이 반복되던 이 씨(58세 · 남)에게 배우자의 간 일부를 이식하는 생체 간이식 수술이 시행됐다. 이 씨는 수술 후 특별한 합병증 없이 회복해 지난 3월 11일 퇴원했으며, 현재 까지 월 1회 외래 진료를 통해 경과를 관찰하고 있다.

이 씨는 B형간염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던 중 간경화로 인한 간문맥 고혈압으로 반복된 위·식도정맥류 출혈을 겪었다. 수차례 위내시경을 통한 지혈술을 받았지만, 출혈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커 간이식을 비롯한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다만 이 씨의 간과 신장 기능이 비교적 양호해 뇌사자 간이식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이 씨의 배우자인 윤 씨(56세 · 여)가 간 일부를 기증하는 생체 간이식을 결심하게 됐다.

이 씨의 치료를 위해 간담체외과, 소화기내과, 이식외과 의료진이 머리를 맞댔다. 의료진은 생체 간이식 적합성 평가를 위해 세브란스병원 간이식팀과의 공동 컨퍼런스에서 이식 가능성을 논의했고, 윤 씨의 간 구조가 이식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술을 준비했다.

생체 간이식은 뇌사자 간이식과 달리, 건강한 공여자의 간 일부만을 절제해 수혜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이다. 공여자와 수혜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고, 크기가 작은 혈관과 담도를 정교하게 연결해야 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술기와

진료과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 씨의 경우 간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혈관에 큰 혈전이 동반돼 수술 난도가 더욱 높았다.

수혜자 수술을 맡은 이식외과 임승혁 교수는 간경화로 손상된 이 씨의 간을 절제한 뒤 혈전을 함께 제거하고, 공여자 간을 이식해 조심스럽게 혈관과 담도 문합을 실시했다. 공여자 수술은 복강경을 이용한 우측 간 절제술로, 간담체외과 노승윤 교수가 집도했다. 소화기내과 임태섭 교수는 수술에 앞서 반복되는 정맥류 출혈에 대한 내과적 치료를 시행하는 한편 장기적인 치료 방향을 함께 검토했다.

수술 이후 시행한 위내시경 검사 결과, 이 씨의 반복적인 출혈의 원인이었던 식도와 위 정맥류는 크게 호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혈액검사와 전신 상태도 양호했다. 윤 씨 역시 특별한 이상 소견 없이 회복했다.

임승혁 교수는 “이번 생체 간이식 수술은 반복적인 정맥류 출혈과 주요 혈관의 혈전이 동반돼 수술 전 치료부터 이식 수술까지 세심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했다”며 “여러 진료과와 부서가 긴밀히 협력한 덕분에 고난도 생체 간이식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승윤 교수는 “이제 생체 간이식의 첫걸음을 뗀 만큼 각 진료과의 역량을 모아 간이식 프로그램을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를 통해 수술 전 내시경적 지혈술과 중환자 치료 준비, 이식을 위한 다학제 협력 등 중증 간질환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 과정을 병원 내에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병원은 앞으로도 중증 · 고난도 진료 역량을 강화해 지역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 병원은 지난해 12월 말기 간부전 50대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개원 첫 뇌사자 간이식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 생체 간이식까지 성공적으로 시행하며 간이식 치료 역량을 넓혀가고 있다.



중입자치료 ‘상담 진료’ 개시



우리 병원은 최근 경기 남부 지역 암 환자의 중입자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와 연계한 ‘중입자치료 상담 진료’ 운영을 시작했다. 실제 중입자치료는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시행한다.

상담 진료는 매주 목요일 방사선종양학과 외래에서 진행된

다. 의료진은 환자의 진단명, 병기, 치료 이력, 영상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추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 외래 진료로 연계한다. 중입자치료를 받은 환자는 이후 경과 관찰과 후속 진료를 우리 병원에서 이어갈 수 있다.

주요 상담 대상 암종은 전립선암, 췌장암, 간암, 폐암, 육종, 두경부암, 재발성 직장암이다.

변화경 방사선종양학과장은 “상담 진료를 통해 용인을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 암 환자들이 중입자치료 가능성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연세의료원 내 암 진료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환자들이 편리하게 연속성 있는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자인 씽킹 워크숍 결과 공유회



지난달 20일 병원 4층 대강당에서 ‘2026 디자인 씽킹 워크숍 결과 공유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유회는 지난 7월 열린 디자인 씽킹 워크숍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AI 전환(AI) 추진을 위한 교직원들의 아이디어

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선 워크숍에서는 경험 중심성 · 운영 효율성 · 임상 우수성 등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교직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경험한 문제와 개선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공유회에서는 당시 도출된 아이디어 가운데 대기시간 실시간 안내, 외래 예약 최적화, 처방 안전성 강화, 낙상 모니터링, 음성인식 진료기록 작성, 의약품 · 소모품 재고관리 등 환자 경험 개선과 진료 ·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AI 활용 방안이 소개됐다.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와 국제 보건의료 증진 MOU



지난 7월 24일 병원 5층 대회의실에서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World-OKTA, 월드옥타)와의 업무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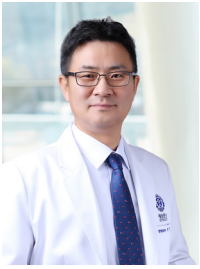
협약식에는 박진오 병원장과 박진영 1부원장, 홍지만 기획관리실장 등 병원 관계자와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 등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월드옥타는 1981년 모국의 경제 발전과 무역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결성한 단체로, 현재 76개국 157개 지회에 7,000여 명의 정회원을 두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 회원과 가족의 의료 이용을 지원하고, 국제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진오 병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29년간 용인 지역 의료 발전 및 주민 건강증진 기여 공로



박진오 병원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국제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F 2026)'에서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진오 병원장은 1997년부터 약 29년간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며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병원장을 맡아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이끌었으며,

2020년 신축 이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이후에도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와 의료 질 향상, 스마트 병원 구축 등에 힘써왔으며, 2026년 병원장으로 재부임해 병원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이끌고 있다.

박진오 병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의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아뇌전증 환자 가족 ‘희망캠프’ 의료지원

- 응급상황 대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우리 병원은 지난달 5일부터 7일까지 골든툴립에버호텔 용인에서 열린 '2026 소아뇌전증 환자 가족과 함께 하는 희망캠프'의 의료지원에 참여했다.

한국뇌전증협회가 주관한 이번 캠프에는 소아뇌전증 환아와 가족을 비롯해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 총 83명이 참여했다. 캠프는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 가족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우리 병원은 캠프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신속한 진료와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체계를 마련했다. 소아신경과 구청모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캠프에 함께했다.

우리 병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환자 가족, 지역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의료적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수 협력업체 감사패 전달식



지난달 26일 5층 대회의실에서 우수 협력업체 감사패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번 감사패는 다양한 특식 메뉴와 양질의 급식 제공을 통해 교직원과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급식 환경 조성에 기여한 협력업체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진오 병원장은 (주)아워홈 용인세브란스병원점 관계자에게 직접 감사패를 전달하고, 전문적인 급식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급식서비스를 제공해온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물놀이 후 아이가 귀 아파한다면... 외이도염 의심해야

- 젖은 귓속은 작은 자극에도 감염 취약... 면봉 등으로 자극은 금물

바다와 계곡,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를 한 뒤 귀의 불편감이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외이도염을 포함한 외이염(H60)으로 진료받은 0~9세 아동은 물놀이가 잦은 7~8월 평균 1만 3,065명으로, 나머지 달의 평균(6,693명)의 약 2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에서의 증가율이 약 29%인 것과 비교하면 0~9세에서 계절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물에 불어난 외이도, 작은 자극에도 감염 위험

외이도는 귓구멍 입구에서 고막까지 이어지는 통로다. 외이도 피부와 귀지는 약산성의 보호 환경을 만들어 세균이 쉽게 증식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런데 물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가 붓고 보호 기능이 약해지면서 세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으로 변한다. 여기에 면봉이나 손톱 등으로 작은 상처까지 생기면 감염 위험은 더욱 커진다.

외이도염이 생기면 귀 안이 가렵거나 먹먹하고 통증이나 분비물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귓바퀴를 당기거나 이주(귓구멍 앞쪽 볼록 튀어나온 부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 특징적이다. 외이도가 부으면 귀가 막힌 느낌이 들거나, 증상이 악화되면 청력저하가 동반될 수도 있다.

어린이는 이러한 불편감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해 귀를 자주 만지거나 보챌 수 있다. 다만 귀를 만지거나 아파하는 행동만으로 외이도염을 진단할 수는 없으므로, 동반 증상과 외이도 및 고막 상태를 진료 시 함께 확인해야 한다.

면봉 넣지 말고, 물은 자연스럽게 말려야

물놀이 후 귓속 물기를 없애기 위해 면봉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권장하지 않는 행동이다. 외이도 피부는 얇고 자극에 취약해 쉽게 긁힐 수 있으며, 귀지나 이물질은 오히려 안쪽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물기는 자연스럽게 빠지거나 체온에 의해 마른다. 물이 남아 불편하다면 물이 들어간 귀가 아래로 향하도록 머리를 기울인 뒤 귓바퀴를 여러 방향으로 부드럽게 당겨 물이 흘러나오게 한다. 바깥쪽 물기만 수건으로 닦고, 필요하면 헤어드라이어를 차갑고 약한 바람으로 설정해 귀에서 약 30cm 떨어뜨린 상태로 말리는 것도 방법이다.

물놀이와 중이염은 별개... 발생 위치와 치료법도 달라

급성 중이염은 주로 감기와 같은 상기도 감염 이후 코와 중이를 연결하는 이관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고막 안쪽 중이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물놀이 후 귀가 아프다고 하면 흔히 중이염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일반적인 물놀이 중 귓속에 들어간 물이 고막 안쪽의 중이로 직접 넘어가지는 않는다. 다만 고막에 구멍이 있거나 중이염 치료를 위해 고막 환기관을 삽입한 경우에는 아이의 상태와 물놀이 환경에 따라 별도의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

외이도염은 귓바퀴나 이주를 건드릴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급성 중이염은 감기를 앓은 뒤 발열이나 보챔, 수면 장애와 함께 귀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증상만으로 두 질환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경 검사 등을 통해 외이도와 고막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급성 외이도염은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성분 등이 포함된 점이액을 우선 처방한다. 통증 정도에 따라 진통제를 함께 복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염증이 외이도 밖의 피부까지 번졌거나 당뇨·면역저하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경구 항생제가 필요할 수 있다.



치료를 시작하면 대부분 2~3일 이내에 통증과 불편감이 줄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오히려 심해지면 진단이 맞는

지, 점액이 염증 부위에 제대로 도달하고 있는지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고열이 동반되거나 귀 주변까지 붉게 붓는 경우, 통증이 매우 심한 경우, 청력이 뚜렷하게 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도움말



이 비 인 후과
신승호 교수

신규 협력 의사 소개

우리 병원은 지역 의료의 질 향상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견고한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병원 및 협력의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협력의사 2,173명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병의원명	의사	병의원명	의사
아산필내과	홍성철	용인더내과	임동혁

반듯한정형외과	김현우	임재규내과	임재규
더연세유외과	김민지	김앤권병원	정대영
신동구심맥내과	신동구	서울아산센트럴내과	김수옥
푸른가정의학과	고경동	서울어린이병원	이택영
해성병원	홍자영	청담맑은피부과	이상진
보아사이비인후과	임화성	나스정형외과의원	나상수

기부금 모금 현황

암센터 건축기부금	
누적 모금액	22억 8545만원
전체 목표 금액 (2024.7.~2027.7.)	50억(달성률 45.7%)

2026년 8월 후원 소식(8.24. 기준)

1000만원 미만 기부

병원 발전기부금

- 염호영 후원자
- 박진영 후원자
- 박근애 후원자
- 박진오 후원자
- 주수용 후원자
- 신혜연 후원자

소아청소년과 발전기부금

- 시스템옴 티임빌라스 수원
- 신시아 후원자
- 임경택 후원자
- 박형민 후원자

신경과 발전기부금

- 염호영 후원자
- 한이철 후원자

암센터 건축기부금

- 신갈나주집
- 이은희 후원자
- 하동운 후원자

일반 후원

온라인 모금 플랫폼 이용
(QR코드 스캔)

교직원 급여공제

- ① 그룹웨어 로그인
- ② 'ESS' 메뉴 → '재무/급여' 메뉴
→ '기부금' 메뉴 → '기부금 급여공제' 클릭
- ③ '신규후원' 클릭
- ④ 기부항목 조회 및 선택
- ⑤ 공제금액, 기간 선택 후 '신청' 클릭

후원계좌 직접 입금, 현물 기부 등의 기부 방법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yonginpm@yuhs.ac / 031-5189-8209

45.7%

 **진료 예약** 1899-1004
  **건강검진 예약** 1899-1565
  공식 인스타그램
  공식 유튜브
  진료협력센터

미션·비전·실행 전략

미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비전

아시아 중심 병원

디지털 혁신

디지털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미래지향적 의료생태계 구축을 선도한다.

안전과 공감

고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하며 공감을 통해 신뢰받는 병원이 되다

하나의 세브란스

세브란스의 명성과 전문성을 이어받아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